

국민연금공단 “사람 중심 쇄신 추진할 것”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3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사람 중심’의 종합적 쇄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근본적 변화를 위해 인재상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사람 중심의 쇄신을 추진하겠다”며 “최고의 직업윤리와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단은 쇄신 방안으로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 강화 ▲업무혁신과 신기술 활용 등을 내놓았다.

먼저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서는 기존 전문성 검증에 더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조회 신설과 인성검사 강화를 통한 채용절차를 혁신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비위나 금품수수 등 6대 비위행위는 정도가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하더라도 해

‘공직윤리’ 강조 쇄신대책 발표

국민 신뢰 제고 위해 최고의 직업윤리 함양

글로벌 전문성 강화·업무혁신 등 내놓아

임하는 이상의 징계를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방안인 글로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재 영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사 혁신으로 전문성과 조직 활력을 높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성과급 배분 차등 폭 확대와 특별승진 활성화로 우수 성과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한다. 직 위공모 확대와 인력교류 활성화로 퇴직 등에 따른 리더십 공백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투자방침도 세웠다. 향후 5년간 전체 기금의 55%까지 해외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해외투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 전문인력을 확충해 해외사무소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그 외에 해외 우수 연기금

과 협력, 글로벌 자선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와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세 번째 쇄신 방안으로 혁신과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공단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와 기술의 발전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쇄신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소통을 통해 직원참여도 활성화하겠다”며 “창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공간 혁신을 병행하는 등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3일, 공단이 발표한 쇄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북은행, 오픈뱅킹서비스 금투회사까지 참가기관 확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기존 오픈뱅킹 서비스를 고도화해 상호금융 및 금융투자회사까지 참가기관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개선된 전북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로 전북은행 스마트뱅킹 이용 고객은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4개 상호금융과 삼성증권·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 등 13개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계좌를 등록해 잔액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그동안 오픈뱅킹 서비스는 일반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카드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권의 계좌를 오픈뱅킹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 고도화로 오픈뱅킹에 등록된 타행계좌의 계좌개설, 최종거래일, 만기일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계좌 거래내역 조회도 가능함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의 앱을 일일이 설치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북은행 스마트뱅킹을 통해 등록 계좌의 정보확인 및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지역내 총생산 2.3% ↑

실질·규모 경제성장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북도 지역내 총생산(경제성장률) 관련 각종 증감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이면서 전북경제 회생 결과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의 2019년 지역내 총생산(실질 GRDP)은 2.3% 증가해 전국 평균 2.1%보다 0.2%p 높게 성장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7위(9개 광역도 중 4위)에 해당한다.

전북도의 지역내 총생산 실질증감률은 지난 2017년 1.9%, 2018년 1.7%에 이어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명목 GRDP는 51.8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2조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1,924조원의 2.7%, 17개 시도 중 12위(9개 광역도 중 7위)에 해당한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87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94만원으로 전국 평균 34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제구조 생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1.5%p 증가한 60.0%를 차지했으며, 건설업 비중이 증가했지만 광·제조업 비중은 감소했다.

경제구조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55.7%를 차지했고, 정부소비 1.8%p,

건설투자 0.4%p가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는 0.2%p 감소했다.

지역총소득은 51조원으로 전국의 2.6%이나, 지역내 총생산 대비 98.3% 수준으로 전년 96.4%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지역소득 증감률이 4.5% 증가해 이는 광역도 증감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개인소득 또한 33.8조원으로 전년 33조원 대비 0.7조원 2.3%가 증가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19년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7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집행, 군산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 등 재정투입으로 성장을 지켜냈고, 특히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공공행정에서 고용이 대폭 늘어나 서비스생산 통계에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철수 등 잇단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 전북 경제통계가 선진한 것은 경제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지역총소득과 개인소득 증감을 등 긍정적 지표를 의미있게 보고, 2020년 7조6,000억원대, 2021년 8조원대 국가예산, 상생형 일자리, 역대 최대 고용률, 새만금 SK 2조원대 투자이행 등 희망적 경제 아이템이 있어 내년 지표 또한 선진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토양개량제 무상 지원

전북농협, 7억4500만원 상당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개량제를 무상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7억4,500만원 상당 530여톤으로 도내 19개 지역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토양개량제는 저온탄화재로 무산 상태에 있어 열을 가해 만든 저온탄화물질로 토양 속 양분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탄소의 비을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2020년도 농촌진흥청 친환경 안전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에 적용되기도 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많은 농가들이 토양관리를 농사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토양관리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전북농협은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개량제를 무상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열어붙은 지역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7%가

늘어났다 등 코로나19 확산 이후 로컬푸드 인기가 높은 만큼 전북농협도 소비자가 믿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LX,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한 특별방역조치 가동

현장업무 일부 중지 등이 골자

시급성 요구되는 업무는 우선 처리하되 문자 발송

우선 처리하되 문자 발송

정부가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가 국민과 직원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특별방역조치를 가동했다.

LX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따라 10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21일 비상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현장업무 일부 중지 등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 대응방안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요청이 있는 업무는 바로처리센터(1588-7704)를 통해 우선 처리하되 문자 발송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에 한 발 앞선 것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강력한 예방 조치다.

매일 3~4건씩 대면 처리하는 측량 업무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집단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현장업무 일부 중지와 함께 내부 및 인접지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지사장의 판단에 따라 전 직원이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LX는 자치단체와 협의회 현장업무 중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원실 접수창구를 임시 폐쇄하는 한편 지사 내 접수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정렬 사장은 “LX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여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 농가에 ‘큰 호응’

농진청,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운영... 종합만족도 5점 만점에 4.65점 전년보다 5.6% ↑

상담 내용 농장 직접 정용하는 현업적용도 전년비 23% 증가... 도움 된 분야는 ‘질병’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및 비대면 상담으로 운영한 올해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이하 종합상담)’이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합상담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실내 집합형 상담보다는 개별 현장 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확대·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2020년 종합상담의 종합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5점으로 전년보다 5.6% 상승했다.

특히 상담 내용을 농장에 직접 적용하는 현업적용도 항목은 4.27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된 분야는 ‘질병(39.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우 농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번식(30.1%)과 사양관리(25.0%)였으며, 젓소 농가는 사양관리(36.4%)와 질병(22.7%)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양돈 농가는 사양관리(40.0%)와 축산환경(30.0%), 염소 농가는 질병(28.0%)과 폴사료(20.0%)에 대해 가장 많이 상담했다. 종합상담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한우, 젓소, 돼지, 염소 4개 축종(가축 종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참여자 277명의 평균 연령은 53.8세로 지난해보다(55.2세) 1.4세 낮았으며, 60대가 29.3%로 가장 많았다. /김윤상 기자

평균 사육 경력은 16년이었다. 올해 처음 도입한 비대면 상담에 대한 별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83.3%)이 불만족(16.7%)보다 월등히 높았다. 만족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시간 절약 등을 꼽았으며, 불만족 이유는 통신망 문제(궤간, 접속불량), 집중도 저하 등을 들었다.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기술 지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별 현장 방문, 비대면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올해 상담 결과를 반영·보완해 내년에도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은 장학문화재단, 도내

중고교 17곳에 필라멘트 기증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도내 중·고등학교 17개 학교에 500만 원 상당의 PLA 필라멘트를 기증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PLA 필라멘트는 인체에 무해한 옥수수, 사탕수수, 고구마 등과 같은 식물성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진 친환경 수지로 매우 안전하며, 전북은행에서 지원했던 도내 중·고등학교 중 신청을 받아 최종 17개교에 순차적으로 배송을 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남원시는 지난 22일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박노현)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천만 원을 춘향 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노현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민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던 중 미래 남원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춘향장학재단 이환주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탁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후일 남원을 꾸리고 나갈 미래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협 남원시지부는 남원시 제1금고로 협약, 일반회계 등 시 예산을 운용관리 하고 있고 협약기간 동안 매년 3억1,000만원의 협력 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다. /남원=김기우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해맞이 행사 취소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매년 1월 1일에 덕유산국립공원의 주봉인 함적봉에서 진행되었던 해맞이 행사를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심요한 재난안전과장은 “비대면 해맞이 일출 영상을 SNS를 통해 라이브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니, 가정에서 안전하게 새해를 맞아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